

# 세계 초유의 창안인 高麗鑄字印刷

千 惠 鳳\*

- 머 리 말  
一. 鑄字印刷의 起源說  
二. 中央官署의 鑄字印刷

- 三. 寺刹의 鑄字印刷  
四. 다른 나라 鑄字印刷와의 比較  
맺 음 말

## 머 리 말

木板印刷은 나무를 베어 적당한 크기와 부피의 판목으로 썬서 물에 담그거나 썬서 汁液을 빼고 충분히 건조시켜 썬거나 뒤틀리거나 빠개지지 않게 하는 동시에 결을 삭여 판각하기 쉽게 해서 대패질한 다음, (1) 刊行코자 하는 책을 깨끗이 써서 판목위에 뒤집어 붙이고 한 자 한 자를 정성껏 새겨내기 때문에 費用과 時間이 무척 많이 들면서도 오직 한 문헌의 印刷로 국한되는 것이 큰 폐단이었다. 그리하여 한 벌의 活字를 만들어 놓고 잘 간직하면서 필요한 책을 입수하는대로 수시 組版하여 손쉽게 찍어 유통시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便利한 방법을 궁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活字印刷의 利點을 실현시키려는 最初의 試圖은 北宋의 慶曆年間(1041~1048)에 畢昇이란 평민이 만든 膠泥活字에서 비롯하였다. (2) 그러나 그 活字는 잘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耐久性이 약하여 자주 망가지고 또 組版하기 까다로와 實用化에 失敗하였으며, (3) 그것을 金屬活字의 印刷에서 처음으로 成功시킨 것이 바로 高麗朝의 우리 祖上들이었다. (4)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어 독서 또는 학문하는 이들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木板印刷과 같이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한 번 活字를 만들어 잘 간직하면서 손쉽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책을 수시 찍어 내어 이용할 수 있는 鑄字印刷가 정녕 안성마춤이었다. (5) 高麗 때 조상들이 온갖 슬기를 짜내어 처음으로 고안해 내는 데 성공한 까닭도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成均館大學校 文科大 教授

- (1) 徐有榘, 《林園十六志》卷 105 怡雲志 卷7 圖書藏訪 下 鑄印 鑄板法.  
(2) 沈括, 《夢溪筆談》卷18 板印書籍.  
(3) ① 王禎, 《農書》卷22 卷末附錄 造活字印書法.  
② 金宗直, 〈新鑄字跋〉의「活版之法 始於沈括 [畢昇] 而盛於楊克 [古] 天下古今之書籍 無不可印 其利博矣 然其字 率皆燒土而爲之 易以殘缺 而不能耐久」.  
(4) ①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上卷 鑄字印書辨證說의「鑄字一名活字 其法之流來久矣 我東則始自麗季 入于國朝 太宗朝 命鑄銅字 而列聖朝所鑄字樣事實 一通載於內閣所印書籍之末 可徵也」  
② 千惠鳳, 《高麗鑄字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3.  
(5) 《金華耕讀記》活版緣起의「沈括 夢溪筆談記畢昇膠泥刻字法 斯乃活版之所權輿也 視鑄版用力省而程工速 後世其法寢備 或用木造 或用鉛造 或用銅造 我東尤尚之」.

이와 같이 鑄字印刷을 우리가 초유로 考案普及시켰는데 그 起源에 관하여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起源說을 다룬 글이 발표된 바도 있으므로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高麗鑄字印刷의 性格과 特徵을 中央官署와 寺刹로 나누어 詳考하고 그것을 中國과 西歐의 다른 나라와 比較하여 과연 우리의 것이 世界印刷文化史上 初有의 創案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一. 鑄字印刷의 起源說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鑄字印刷의 起源은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起源을 다룬 글이 이미 발표된 바 있으므로 먼저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키로 하겠다.

高麗의 鑄字印刷의 起源을 다룬 글중 가장 빠른 것은 文宗朝(1047~1083)의 起源說이다. (6) 이것은 大覺國師 義天의 碑銘並序에 나타나는 ‘鉛槧’을 ‘鉛版’, ‘鉛活字版’, ‘金屬活字版’의 차례로 任意的인 引伸解釋을 한데서 빚어진 착오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7) 이 경우 ‘鉛槧’은 刀筆刻書의 뜻을 轉用한 것으로서, 文章의 謬缺을 刊正한 다음 板刻케 한 것을 뜻한다. (8)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肅宗 7년(1102)의 起源說이다. 이것은 그해 12월에 鼓鑄法으로 鑄錢하여 宰樞와 文武兩班 軍人에게 分賜한 바 있었는데, (9) ‘그 貨幣鑄造에서 活字鑄造로 轉換하는 것은 아무런 새로운 技術을 요하지 않는다’고 (10) 본데서 나온 견해이다. 그러나 鑄字印刷라는 것은 活字의 鑄造, 組版 및 쇠붙이에 묻는 먹의 개발등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되므로 鑄錢 그 자체를 바로 鑄字印刷과 동일시할 수 없음은 물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든 또 다른 하나는 12世紀 中期의 起源說이다. (11) 15世紀 前半期の 活字本인 古文眞寶大全에 적힌 所藏印 중 하나를 ‘李穡寶藏’으로 잘못 판독하고, ‘그이가 바로 仁宗 2년(1124)에 使臣으로 宋나라의 徽宗에게 禮成江圖를 바친 人物이었다’고 판단한 데서 빚어진 착오이다. (12) 그러므로 이 說로서는 仁宗 4년(1126) 李資謙의 亂으로 宮闕과 書庫 등이 모두 불타고 몇 萬卷의 藏書가 燒失되어 많은 책이 시급히 필요한 데서 鑄字印刷가 創案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 없으니 적어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이렇듯 高麗

(6) 尹炳泰, <高麗金屬活字本과 그 起源> 《도협월보》 Vol. 14, No. 8 (1973. 8) p. 8-12.

(7) 千惠鳳, <高麗鑄字印刷術의 研究> 《成大論文集》 제22집 (1976) p. 2-6.

(8)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159-160.

(9) 《高麗史》卷79 志卷33 食貨2 貨幣條.

(10)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Ⅱ 科學·技術史.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0, p. 990.

(11) 孫寶基, <實學方法에 의한 印刷技術史研究——高麗中期刊本 <古文眞寶>에 대하여——>, 제 7 회 實學公開講座(油印本). 서울, 延世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73.

(12) 千惠鳳, <古文眞寶大全에 대하여>, 《歷史學報》 제 61집 (1974) p. 103-122.

鑄字印刷의 起源은 아직도 풀리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資料 및 實物의 출현과 더불어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究明되길 기대한다.

## 二. 中央官署의 鑄字印刷

高麗朝는 前期에 있어서 佛敎와 儒敎의 兩大文化가 눈부시게 발전되고 文物制度가 잘 정비되었으나, 後期로 접어들자 仁宗 때 李資謙과 妙淸의 兩亂이 있었고, 毅宗과 明宗 때에는 庚寅·癸巳의 兩亂이 일어나서 宮闕이 불타고 備藏해온 많은 藏書가 거의 燒失되어 文運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는 武人天下가 되어 武臣間에 정권쟁탈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필요한 책을 書筵의 諸儒들이 寶文閣에서 讐校하고 교정이 필요치 않은 것은 직접 州縣官署에 分送 雕印케 하여 儒臣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sup>(13)</sup> 또 高宗 때에는 西京의 諸學院에 보내어 刻成케 한 册板을 京都의 書籍店으로 보내어 印出廣施하는 印刷政策을 써왔던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워낙 많은 책이 燒失 또는 漚沒되었으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木板印刷로서는 긴요한 책의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鑄字印刷을 출현케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起源問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하므로 후일의 과제로 돌리거니와, 傳存資料에 의하면 崔忠獻의 一族이 執政하여 安定期로 접어들었던 13세기 초기에 그 鑄字印刷을 실시한 事例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앞선 사례로서는 鑄字로 이미 印出한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江華로 遷都한 高宗 26년(1239)에 武人政府의 제 1인자인 中書令 崔怡(진 이름 瑀)가 명하여 重彫케 한 것이 될 것이다. 그가 기록한 跋文에 의하면 이 證道歌는 禪門에 있어서 매우 긴요한 책으로 參禪하는 이들이 모두 그것에 의해 깊은 이치를 깨닫고 있는 터인데, 그 傳來가 끊겨 통행되고 있지 않아 工人을 모집하여 鑄字本을 重彫해 넘으로써 오래 傳來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sup>(15)</sup> 여기서 注目케 하는 것은 鑄字本을 重彫한 사실이다. 옛적의 鑄字印刷은 기술이 미숙하여 印出部數에 제한을 받았는데 그것들마저 遷都할 때 황급한 나머지 거의 가지고 오지 못하였거나 또는 印出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얻어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한편 遷都以後 그 수요가 격증하자 鑄字本을 翻刻하여 다량으로 印出 보급시켰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그 鑄字本은 遷都以前의 어느 때에 진작 印出된 것임을 알 수

(13) ① 《高麗史》卷20 世家 卷20 明宗壬子 22年 4月 壬子條.

② 《上揭書》卷 17 世家 卷17 毅宗辛未 5年 6月壬申條.

③ 《東文選》卷83 俞升旦 金居士集序.

(14) 林椿, 《西河先生集》後序의 「貞祐十一年壬午(1222) 仲冬樞密院使 兵部尙書 上將軍崔瑀跋」.

(15)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中書令 晉陽公崔怡謹誌에 「夫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堂衆禪之流 莫不由斯 而入外堂觀奧矣 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云云.

있게 한다. 다행히도 근년에 당시 鑄字本을 重彫한 이른바 鑄字版 翻刻本이 발견되었다.<sup>(16)</sup> 다소 後刷인 까닭에 字畫에 부분적으로 나무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지만 翻刻이 매우 精巧하여 밑바탕이 된 鑄字本의 性格과 特徵이 구체적으로 浮刻된다.<sup>(17)</sup> 그 두드러진 것으로서는 첫째 한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頻出하고 있음을 들수 있다. 이것은 木板本에서는 볼수 없고 기술이 미숙했던 古活字本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중의 하나가 된다.

둘째, 本文의 行列이 곧 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을 들수 있다. 木板本은 板下本을 마련할 때 界線을 치고 方眼까지 정확하게 그린 것을 접은 책장 속에 넣고 쓰기 때문에 行列이 바른 편이나, 活字本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치 않은 활자를 하나 하나 植字하기 때문에 字列이 삐뚤빼뚤한 것이 그 특징이다.

셋째, 윗 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 글자의 위 획이 서로 물린 것이 없는 것을 들수 있다. 木板本은 透視되는 方眼 속에 한 字씩 楷正하게 쓴 板下本에 의거 새겨내는데, 이 경우 글자의 획에 따라 위 아래의 글자 획이 서로 물린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活字本은 날개의 活字를 하나하나 植字하기 때문에 初期의 稚拙한 약간의 活字本을 제외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네째, 翻刻이 精巧하여 글자의 모양도 또한 鑄字가 지닌 본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鑄字는 字本을 정성껏 해정하게 써서 부어낸 다음 깎고 손질하여 인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印本은 글자 하나 하나의 모양이 매우 단정하고 가지런한 편이나, 木板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듯 既印의 鑄字本을 重彫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천도이전 즉 皇都인 開城에서 13세기초기에는 적어도 鑄字印刷가 實施되었음을 알수 있게 한다. 이것은 천도직후의 어지러운 전란속에서 기술상으로 어려운 鑄字印刷가 손쉽게 이루어졌던 점에서도 또한 그와같이 여겨진다. 천도 이후는 전란중이라 그 난을 수습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에 대하여 창의적인 머리를 쓸 겨를이 없을 터인데 技術上 創意性이 必要한 鑄字印刷를 그토록 손쉽게 實施했다는 것은 천도이전에 사용해오던 활자가 있어 가지고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鑄字印刷의 경험을 하여 그것의 鑄造使用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sup>(18)</sup>

그 鑄字印刷의 事例에 관하여는 李奎報(1168~1241)가 崔怡(?~1249)를 대신하여 지은

(16) 金宗圭藏의 《南明泉和尚頌證道歌》鑄字版重彫本이며, 現傳의 것중 가장 오래된 完本으로서 1984年度에 寶物로 指定되었다.

(17) 종래 高麗鑄字版重彫本의 例로서 舊一山文庫藏本이며 現國立中央圖書館藏本(貴-392, 한-21-88)을 들어 왔으나, 이것은 朝鮮朝 前期의 重翻刻이어서 字體의 均整度가 훨씬 떨어짐을 對査의 결과 확인하였다. 安東에서 몇해전에 發見된 高麗鑄字版重彫本보다는 이 金宗圭藏本이 앞선 完本의 後印本이며 題簽도 當時의 것이 그대로 붙어 있다.

(18) 筆者는 근자에 金屬活字의 發祥地인 江華島에 紀蹟碑를 세우자는 제기를 읽어 보고 깜짝 놀랐다. 구체적인 연구도 없이 高麗鑄字印刷의 시기를 임의로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高麗金屬活字의 發祥地는 응당 開京이 되어야 할 것이다.

《新印詳定禮文跋尾》에 소상하게 적혀 있다. 《詳定禮文》은 국가의 典禮를 다룬 것으로서 仁宗(1127~1140) 때 崔允儀등이 王命으로 엮은 것을 崔怡의 선친인 崔忠獻이 補綴케 하여 2部 작성한 다음, 禮官과 자기집에 1部씩 간직해 두었는데 천도할 때 禮官의 것은 황급한 나머지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자기 집의 것만이 남게 되어 그 不失을 다행으로 여기고 마침내 28部를 새로 적어 여러 官司에 分藏케 했다는 것이다.<sup>(19)</sup> 그 印出時期를 종래는 高宗 21년(1234)로 여겨왔으나, 그와같이 한정시킬 만한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sup>(20)</sup> 그 〈新印詳定禮文跋尾〉를 보면 崔怡는 高宗 21년(1234)에 晉陽公으로 책봉된 뒤에 代作을 명하였고, 그에 따라 대작을 한 李奎報는 東王 28년(1241)에 江華에서 서거하였으므로 결국 그 사이에 新印된 것으로 넓게 추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sup>(21)</sup> 그리고 이 鑄字印刷도 江華政府의 제 1인자인 崔怡의 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호도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런데 中央官署에서 실시해 왔던 이러한 鑄字印刷은 元의 굴욕적인 從屬政事가 恣行되었던 忠烈王 때부터 그 기능이 마비 또는 침체되었다. 그러다가 麗末에 이르러 排元思想이 싹트고 主權의 復舊意識이 대두되자 다시 종전처럼 書籍鋪를 마련하여 鑄字를 두고 經史子集의 책은 물론 醫方 兵書 律書등에 이르기까지 고루 적어내서 학문에 뜻을 둔 이들의 독서와 연구를 널리 권장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학계에서 일기 시작하였다.<sup>(22)</sup> 이것은 麗末鮮初의 학자인 鄭道傳의 《三峯集》 권 1 〈置書籍鋪詩並序〉에 나타나는 글인 점에서 또한 그대로 믿어 좋을 것이다. 그 요청의 결과 恭讓王 4년(1392) 정월에는 마침내 제도상으로 그 조치가 강구되어 書籍院이 생기고 鑄字印刷 業務를 관장하는 丞과 丞의 職을 두었던 것이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그 기록이 명시되고 있어 알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그해 7월에 朝鮮太祖의 新興세력에 의해 전복되었으니 성과를 거두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 시기로 보아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官鑄印刷를 復活시켰던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에는 開城의 무덤에서 出土되었다고 전해지는 高麗鑄字인 ‘復’字가

(19)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11 新印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的 「至仁廟朝 始勅平章事崔允儀等十七臣 集古今同異 商酌折中 成書五十卷 命之曰詳定禮文 流行於世 然後禮有所歸而人知不惑矣 是書跨歷年禩 簡脫字缺 難於攷審 予先公迺令補綴 遂成二本 一付禮官 一藏于家 其志遠也 果於遷都之際 禮官遺遺未得賣來 則幾若已廢 而有家藏一本 得存焉 予然後 益語先志 且幸其不失 遂用鑄字印成二十八本 分付諸司藏之 凡有司者 謹傳之 勿替毋負 予用志之 痛勗也」.

(20) 아직도 大部分의 歷史書와 年表등이 高宗 21年(1234)說을 그대로 마르고 있는 바, 곧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21) 閔泳珪, 《韓國의 板本과 活字本展示目錄彙》 서울,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4290. p. 11-12.

(22) 鄭道傳, 《三峯集》卷1 置書籍鋪詩並序의 「吾東方 書籍罕少 學者皆以讀書不廣爲恨 予亦病此久矣 切欲置書籍鋪鑄字 凡經史·子書·諸家詩文 以至醫方·兵律 無不印出 俾有志於學者 皆得讀書 以免失時之歎」.

(23) ① 《高麗史》卷77 志 卷31 百官2 書籍店條의 「恭讓王四年 置書籍院 掌鑄字 印書籍 有令丞」.

② 《高麗史節要》卷35 恭讓王2 壬申 4年 春正月條.

한 개 보존되고 있다.<sup>(24)</sup> 그것이 官鑄인지 寺鑄인지 또 언제 鑄造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조심스럽게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高麗鑄字印刷을 實證해 주는 資料가 되는 점에서 주목케 한다.

### 三. 寺刹의 鑄字印刷

元の 굴욕적인 지배아래서 從屬政事가 임의 擅斷되자 中央官署에서 실시해 오던 鑄字印刷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마비 또는 침체되었다고 하였거니와, 한편 그런 사이에 있었던 실로 중요한 일로서는 京都에서 멀리 떨어진 地方의 一個寺刹에서까지 鑄字를 만들어 책을 찍어낸 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中央官署에 의해 실시됐던 鑄字印刷의 이로운 점이 寺刹에 까지 영향을 끼쳐 넉넉한 寺院經濟의 토대위에서 그와같이 인쇄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 寺鑄印刷物로서는 禩王 3년(1377) 7월에 淸州牧의 郊外에 있었던 興德寺가 鑄字를 만들어 찍어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傳來되고 있다.<sup>(25)</sup> 이 책을 초록한 白雲和尚은 法名이 景閑이며 高麗 忠烈王 24년(1298)에 태어나 恭愍王 23년(1347)에 歸寂한 麗末의 三大曹溪禪傑(景閑·太古·惠勤) 중의 한 분이다.

책의 내용은 歷代祖師의 史傳部 諸書에 수록된 偈·頌·讚·詩·銘·書·法語·說法 등에서 禪의 要諦를 깨닫는데 필요한 내용을 이것 저것 手抄하여 上下卷으로 分編하고 題目한 것이다.<sup>(26)</sup> 그 題目의 中心主題인 ‘直指心體’는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란 悟道의 名句에서 딴 것이며, 修禪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이것은 法寶壇經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본성은 그 자체가 본시 淸淨하니 善知識을 작용시켜 心念中에서 그 심성이 自淨함을 깨닫고 自修自行하면 자기 자신이 곧 法身이 되며 자기의 마음이 곧 佛心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간명케 표현하면 參禪하여 道를 깨달을 때 마음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 要節 가운데에는 傳燈錄에 수록된 근 30인의 韓國高僧中<sup>(27)</sup> 경우 新羅 大嶺禪師의 것만이 간략하게 摘記되고 있음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나, 이 책이 禪流의 法弘

(24) 千惠鳳, 〈高麗鑄字印刷術의 研究〉《成大論文集》제22집, (1976) p. 24.

(25) 千惠鳳, 《高麗鑄字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3.

(26) 完全한 正式題目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고 略式題目은 ‘佛祖直指心體要節’, ‘直指心體要節’이 ‘直指心體’ 등으로 쓸 수 있다. 그 略式題目을 ‘直指心經’으로 쓰는 이가 있는 듯한데, ‘經’은 본시 부처님이 說한 教法을 일컫는 것이나 넓은 意味로서는 大藏經 一切經과 같이 經·律·論의 三藏인 佛教基本聖典의 叢集을 일컫고 있으므로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다만 例外的으로 禪宗의 第6祖인 慧能大師의 說法만을 ‘法寶壇經’과 같이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그 說法이 體系的으로 전 되어 있기 때문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합부로 ‘經’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27) 道原, 《景德傳燈錄》第1~30卷.

에 彼劣我優를 다투며 힘썼던 麗末의 禪徒들에게 禪道 내지 禪觀에의 안목을 틈워주고 禪風을 드높이려는 일념으로 老眼을 무릎쓰고 엮어낸 점에서 대견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 鑄字印施는 그의 侍者이며 首弟子인 釋璫을 비롯한 達湛이 緣化主로 구실하였고 妙德이 시주하여 성취하였는데, 그중 卷上은 일찍기 湮沒되고 卷下 零本 1冊만이 현재 프랑스 國立圖書館에 秘藏되어 있다.<sup>(28)</sup>

이 책의 海外流出의 經緯에 대하여는 구구한 억측을 서슴없이 쓰고 있는 이가 있으나,<sup>(29)</sup> 본시 구한말 때 駐韓佛蘭西代理公使로 서울에서 근무한바 있던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ey)가 수집한 藏書속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그뒤 古典蒐集家인 앙리베베르(Henri Vever)의 수중으로 들어갔다가 1950년에 사망하자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國立圖書館으로 기증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이 續補하여 1901년에 간행한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éenne)의 〈附錄〉(Supplément)에 收錄된 데서 비롯하지만,<sup>(30)</sup> 그 실물이 공개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한 것은 1972년 5월~10월의 ‘世界圖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던 ‘책의 展示會’에 출품됨으로 인해 비롯한다.<sup>(31)</sup>

이렇듯 이 《直指心體要節》이 高麗에서 印出된 世界最古의 現存 鑄字本으로 이국의 수도 파리에서 공개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즉시 原本 크기로 影印하고 考證의인 解題를 國·日·英·獨·佛文으로 써서 2冊 1函으로 活印裝冊하여 國內外에 널리 퍼냈던 것이다.<sup>(32)</sup>

이 寺鑄本이 지닌 書誌的 性格 및 特徵중 주요한 것을 들어 考證的 視角에서 要說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本文의 行列이 곧 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였으며 그중에는 글자가 아예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頻出하고 있다. 또한 글자의 墨色의 濃薄度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글자는 전체가 희미하고 어떤 글자는 획의 일부가 적히지 않

(28) ① 千惠鳳, 〈國立中央圖書館藏의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文化財》 제 6 호(1972).

② 姜周鎭, 〈빠리 直指心經을 보고 와서〉, 《書誌學》 제 5 호(1972).

③ 孫寶基, 〈直指心經, 金屬活字考證의 經緯와 그 意義〉 《도협월보》 Vol. 14, No. 3(1973).

④ Chon, Hye Bong, 'Pulcho Chikchi Simch'e Yojol', 《Korea Journal》 Vol. 13, No. 4(1973).

⑤ 金基泰, 〈高麗直指心經의 存續經緯〉 《국회도서관보》 Vol. 15, No. 8(1973).

⑥ 金基泰, 〈直指心經의 保存經緯에 대한 考察〉, 《奎章閣》 6(1982).

(29) 充分한 考證없이 江華의 鼎尼山外史庫 또는 江都外閣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丙寅洋擾(1866)때 프랑스함대가 약탈해 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으나, 史庫와 外閣의 形止案을 보거나 國會圖書館 司書局長인 成宅慶氏의 調査目錄을 보거나 이 책이 그곳에 간직될 性格의 것이 아니다. 排佛崇儒策을 國是로 삼고 있는 朝鮮王朝에서 國朝 및 王室關係資料와 함께 간직될 수 없는 점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30)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éenne Supplément》, p. 70-71 chapitre Ⅱ Bouddisme 3738 白雲和尚抄錄直指心體要節.

(31) 《Books about Books; An International Exhibition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Book Year 1972》 proclaimed by UNESCO. Frankfurt, The Book Fair, 1972.

(32) 千惠鳳, 《高麗鑄字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 서울, 探求堂, 1973.

은 것도 있다. 이것은 初期古活字의 성격과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 요소들 이거니와, 그중 墨色の 濃薄差異는 活字의 面이 평평하지 못하고 기복이 있으며, 글자획의 일부가 찍히지 않은 것은 活字 그 자체가 바로 植字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匡郭의 四周가 固着된 單邊이고 그 匡郭의 上下邊에 界線이 固着되어 있다. 또한 每半葉의 行字數는 11行 18~20字로서 每行의 字數에 3字의 出入이 생겨 글자의 옆줄이 맞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글자의 위 획이 서로 물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活字의 鑄造 및 組版方法이 미숙했던 초기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 13세기 전기의 印出로 여겨지는 官鑄版《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高宗 26년(1239)에 重彫한 翻刻本과 對查하여 보면 이것이 더욱 稚拙한 性格을 나타내주고 있다.

官鑄印本을 重彫한 證道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均整하여 윗글자와 아랫글자의 획이 서로 물린 것이 없는데 이것은 寺刹이 鑄造하여 찍어낸 鑄字本이기 때문에 사뭇 稚拙하다. 元의 굴욕적인 지배로 官鑄活字에 의한 印刷機能이 마비 또는 침체된지 100여년이 지난 뒤에 地方의 一個寺刹이 鑄成하여 印施한 것이니 만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음이 역력하게 나타난다. 한편 朝鮮朝에서 最初로 太宗 3년(1403)에 주조하여 찍은 癸未字本과 對查하여 보면 固着시킨 銅板을 만들어 各行間에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활자를 꽂들어 맞도록 密着排字한 점, 옆줄이 맞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윗字와 아랫字의 획이 서로 물리고 있는 점, 그리고 最近에 발견된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의 癸未小字本에 있어서는 2·3字의 出入까지 생기고 있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발견된다.<sup>(33)</sup> 물론 鑄字印刷의 發達史的인 시각에 입각하면 癸未字本의 기술이 이 寺鑄本보다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13세기 무렵의 官鑄印刷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기술자가 없었던듯 口傳을 참고하여 사찰나름으로 주조하느라고 무척 고생했음을 알수 있다.<sup>(34)</sup> 이렇듯 그 기술이 미숙하여 鑄成이 매우 거칠었다.

셋째, 글자의 모양이 고르지 않고 글자획의 太細가 不整하며 또 刀刻의 흔적이 보이는 木活字도 混用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동일한 글자에 있어서 같은 字樣의 것이 드물고 글자획이 均整치 않은 것은 鑄字術이 미숙했기 때문임은 물론이요, 근본적으로는 寺刹에서의 鑄字方法이 官署에서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임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字體도 高麗後期에 유행하였던 것으로서 朝鮮朝에서 鑄成한 활자중에는 그러한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版式을 볼 때 黑口와 魚尾가 전혀 없고 다만 書法이 서로 다른 版心題인 ‘直指下’가 交替로 반복되면서 卷末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의 장에서 ‘指’의 一字가 脫字되어 있다. 이것은 二種의 組版틀을 마련하여 서로 갈아 사용하다가 끝에서 한 字가 脫落되었으니 역시 組版印刷임을 알수 있다.

(33)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 제 6 호(1974).

(34) 全相運, 《읽어버린 章——韓國科學의 遺産을 더듬어——》 서울, 電波科學社, 1982.



朝鮮朝에서 印出된 鑄字本에 있어서는 黑口와 魚尾 또는 魚尾의 여러 종류중 어느 하나가 대체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도 이 寺鑄本은 麗末의 特性을 지녔다고 하겠다.

넷째, 책 끝의 卷尾題 다음에는 ‘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 興德寺鑄字印施’의 刊記에 이어 그 裏面에는 ‘緣化門人 釋璨 達湛, 施主 比丘尼 妙德’이 活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刊本에 있어서 刊記는 뒤에 重刊하면서도 原本의 기록대로 移植 또는 版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寺刻本에 있어서 助緣 門人 施主등만은 대체로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다. 이경우 門人中 釋璨은 바로 白雲和尚 景閑의 侍者로서 스승의 《白雲和尚語錄》上下卷을 輯錄한 首弟子이며,<sup>(35)</sup> 또한 國立中央圖書館藏 同書 木板本에 의하면 익년인 高麗 禎王 4년(1378)에 본서를 驪州 鷲巖寺에서 上梓할 때 주동적인 구실을 하였다.<sup>(36)</sup> 興德寺의 寺鑄本이 기술 미숙으로 많은 부수를 찍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익년에 이렇듯 다시 板刻하여 다량으로 유통시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達湛도 또한 釋璨 法麟과 함께 본서를 鑄印한 일년후에 鷲巖寺에서 前掲한 스승의 어록을 鈔梓한 門人이다.<sup>(37)</sup> 그리고 施主 比丘尼 妙德도 위의 語錄 開板에 있어서는 물론, 그해에 同寺에서 본서의 鑄板時에 그 일을 크게 도와 功訖을 보게 한 助緣門人 이다.<sup>(38)</sup>

이와같이 興德寺에서 鑄字印施한 《直指心體要節》이 바로 당대의 景閑弟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刊記대로 高麗 禎王 3년(1377) 7월의 印出이 틀림없는 것으로 고증된다. 高麗의 官鑄活字本이 아니고 寺鑄活字本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의 鑄字本인 바 우리가 最初로 鑄字印刷를 創案 普及시킨 슬기로운 文化民族임을 만방에 여실히 과시할 수 있으니 더없는 우리겨레의 자랑이며 긍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四. 다른 나라 鑄字印刷와의 比較

다음으로는 世界印刷文化史의인 視角에서 다른 나라의 字鑄印刷와 比較하여 우리의 것이 과연 獨創性과 優位性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sup>(39)</sup>

세계에서 活字印刷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沈括(1030~1094) 撰인 《夢溪筆談》의 〈板印書籍〉條에 의하면 畢昇이란 평민이 北宋의 慶曆年間(1041~1048)에 고안해낸 膠泥活字의 인쇄이다. 이 때 그 活字는 차진 흙을 잘 빚어 부피를 돈뉘처럼 얇게 하여 글자를 새긴 다음, 하나하나씩 떼어 불에 구워 단들어냈다. 印刷하기 위한 組版은 하나의 鐵板을 마련하여 송진에 종이 태운 재를 섞은 粘着性 물질을 붓고 그 위에 鐵로 만든 印板을 먼저 놓았다. 그

(35) 高麗本 《白雲和尚語錄》(上下) 卷首題 次行의 ‘侍者 釋璨 錄’ 參照.

(36) 千惠鳳, 〈國立中央圖書館藏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文化財》제 6호 (1972).

(37) 景閑, 《白雲和尚語錄》卷首 李穡序 및 李玖溫甫序.

(38) 國立中央圖書館藏 上掲木板本 卷末 刊記.

(39) 千惠鳳, 〈韓中兩國의 活字印刷와 그 交流〉, 《民族文化論叢》제 4집 (1983).

리고 그안에 활자를 가득차게 배열하고 불에 쪼며 그 점착성 물질이 녹으면 다른 平板으로 活字面을 눌러 판판하게 한 다음, 식혀 굳게 해서 책을 찍어냈다. 또 그 인쇄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두 개의 鐵印板을 마련하고 한 板이 인쇄중 다른 판에는 활자를 배열하여 앞 판의 인쇄가 끝나면 곧 다른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번갈아 준비하였다.<sup>(40)</sup> 정녕 획기적인 고안이었다.

그러나 재료가 찰흙이고 되풀이하여 조판하기가 어려워져 실용화되지 못한 하나의 발명작으로 그쳤으며 그가 죽은 뒤에는 沈括의 群從이 일어 보배처럼 간직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元代 初期에 姚樞(1203~1280)가 그의 제자인 楊古에게 또다시 畢昇의 활자를 만들어 인쇄를 시도케 하였을 때,<sup>(41)</sup> 종래의 점착성 물질 대신 송진에 기름을 섞어 만든 稀澀靑을 사용하여 조판 인쇄하였는데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다.<sup>(42)</sup> 흙을 구어 만든 활자인 까닭에 耐久性이 없어 자주 일그러지고 또 점착성물질의 응고력이 약해 인쇄도중 활자가 자주 떨어져지거나 동요가 생겼기 때문인듯하다. 하는 수 없이 鐵로 만든 印版을 진흙으로 만든 印版으로 갈고 차진 흙을 얇게 간 다음, 그위에 이미 구은 활자를 배열하여 다시 가마속에 넣어 구어 한 조각으로 고착시켜서 인쇄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다.<sup>(43)</sup> 이러한 요령으로 조판한다면 많은 부수를 신속하게 찍어낼 수 있으나, 그 활자는 한 번 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결국 활자인쇄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되고 만 셈이다.

그리하여 王禎이 지은 《農書》에 附錄한 <造活字印書法>에 의하면 ‘近世’에 또 다시 錫을 녹여 활자를 만들어 인쇄를 시도하였는데, 활자의 몸통에 구멍을 뚫어 철사로 꿰어 줄로 만든 다음 印板의 界行에 넣고 인쇄하였는데, 活字面 위에 먹이 잘 묻지 않고 또 대개는 인쇄할 때 활자가 파괴되어 실패하고<sup>(44)</sup> 지금 또 다시 木活字 인쇄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近世’라는 것은 蒙古가 元으로 국호를 정한 1271년을 전후한 무렵인 13세기 후반기가 될 것이므로 元이 이미 高麗를 지배하던 때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그 시기 그리고 당시의 주중관계를 아울러 고려하면 錫活字의 鑄成은 高麗로부터 자극을 받고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組版法은 위에서 든 鑄字版 證道歌의 重彫本을 비롯한 麗末鮮初

(40) 沈括, 《夢溪筆談》卷18 板印書籍條.

(41) ① 姚燧, 《牧菴集》卷15 中書左丞姚文獻公 [樞] 神道碑의 「小學書流未廣 教弟子楊古爲沈氏活板與近思錄·東萊經史論說諸書 散之四方」.

②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三, 活字板的發明 宋元泥活字.

③ 昌彼得, 《中國圖書史略》三. 印刷書冊時代 膠泥活字版的演進.

④ 《元史》卷158 列傳第45 姚樞.

⑤ 《新元史》卷157 列傳第54 姚樞·燧·燧.

(42) 王禎, 《農書》卷22 卷末附錄 造活字印書法の 「後世有人別生巧技 以鐵爲印盤 界行內用稀澀靑澆滿 冷定取平 火上再行煨化 以燒熟瓦字排於行內 作活字印板 爲其不便」.

(43) 《上揭書》의 「爲其不便 又有以泥爲盤 界行內用簿泥 將燒熟瓦字排之 再入窰內 燒爲一段 亦可爲活字板印之」.

(44) 《上揭書》의 「近世 又鑄錫作字 以鐵條貫之作行 嵌於盤內界行印書 但上項字樣 難於使墨 率多印壞 所以不能久行」.

의 鑄字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組版法이 까다로워 膠泥活字 이후의 난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던 듯하다.

그리하여 새로운 각도로 머리를 써서 木活字 인쇄를 고안하고 그 공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農書》가 엮어진 무렵이니까 13세기 말기에서 14세기 초기로 넘어오는 무렵에 해당한다.<sup>(45)</sup> 이때의 木活字印刷 공정은 板木으로 印板을 만들고 대조각을 깎아 界行을 준비하는 한편 板木에 글자를 새겨 작고 가는 톱으로 하나씩 갈라 小刀로 네 면을 고르게 다듬고 대소와 고저가 일정하도록 손질하여 활자를 먼저 만들어 냈다. 그런 다음 그 활자를 배열하고 界行을 끼고 대조각을 깎아 빈 데를 메워 나가면서 印版에 가득차게 植字를 마치고 木槌를 사용, 튼튼하게 해서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판하여 인쇄하였다.<sup>(46)</sup> 이 木活字印刷法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렇듯 中國은 木活字印刷에 성공한 것이 고작이었다.

中國에서 金屬活字의 인쇄를 실지로 성공시킨 정확한 사례는 明代의 弘治正德年間(1488~1521)에서부터 볼 수 있다. 그것도 官署가 아닌 민간들이었으며, 그중 無錫의 華燧 華煜의 會通館과 華堅 華鏡의 蘭雪堂 그리고 安國의 桂坡館등에서 찍어낸 銅活字本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sup>(47)</sup> 現存本으로서 會通館이 弘治 3년(1490)에 印出한 《宋諸臣奏議》를 비롯하여 蘭雪堂이 正德 10년(1515)에 인출한 《蔡中郎文集》과 正德 11년(1516)에 인출한 《春秋繁露》 그리고 桂坡館이 嘉靖 3년(1524)에 인출한 《吳中水利通志》등을 實查하였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鑄造術이 조잡하여 字樣이 不整하고 활자의 고저가 일정치 않아 墨色の 濃薄差異가 심한 바, 그 精巧度는 이보다 반세기 내지 1세기나 앞서 世宗 16년(1434)에 鑄成된 甲寅字로 찍은 銅活字本과 對查해볼 때 전혀 比較할 나위가 못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케 하는 것은 활자가 유달리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고 行列이 삐들삐들하여 그 특징이 우리의 鑄字本과 공통되는 점이라 하겠다.

中國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元나라의 錫活字에서 철사로 꿰뚫어 일직선으로 組版을 하려다 실패하고 그것을 清代의 武英殿에서 만든 聚珍字版에 이르러 성공하여 모든 字列이 일직선을 이루었는데, 이것만이 우리의 銅活字本과 같이 삐들삐들하게 植字되어 있

(45) 千惠鳳, 〈韓中兩國의 活字印刷와 그 交流〉, 《民族文化論叢》 제 4 집(1983) p. 51.

(46) 王禎, 《農書》卷22 卷末附錄 造活字印書法の「今又有巧便之法 造板木作印版 削竹片爲行 雕板木爲字 用小細鋸鏤開 各作一字 用小刀四面修之 比試大小高低一同 然後排字作行 削成竹片夾之 監字既滿 用木槌搗之 使堅牢 字皆不動 然後用墨刷印之」.

(47) ① 葉德輝, 《書林清話》卷8 明錫山華氏活字板·明華堅之世家·明安國之世家.  
 ② 孫毓修, 《中國雕板源流考》活字印書法.  
 ③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活字板的發明.  
 ④ 毛春翔, 《古書版本常談》活字本.  
 ⑤ 劉國均, 《中國書史簡編》明代的圖書和出版事業.  
 ⑥ 屈萬里·昌彼得, 《圖書板本學要略》歷代活字本.

다. (48) 中國의 書誌學者도 언급하였듯이 이 민간의 銅活字本만은 우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49)

한편 西歐에 있어서는 獨逸의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가 1440년대의 말기에 처음으로 金屬活字를 주조하여 인쇄하였다는 《世界審判》과 《天文曆》 그리고 1455년을 전후한 무렵에 찍어낸 《四十二行聖書》등이 그 초기의 活字本으로 전해지고 있다. (50) 이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조선조에 들어와서 세번째로 世宗 16년(1434)에 주조한 甲寅字 所印의 金屬活字本보다도 뒤에 해당하므로 高麗때의 鑄字本과는 아예 비교할 나위가 못된다. 鑄字 印刷라면 우리 祖上들이 史上 最初로 考案 發展시킨 가장 슬기로운 文化所産임을 새삼 수긍케 한다.

### 맺 음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活字印刷에 관한 初期知識과 그 利點은 비록 北宋의 膠泥活字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鑄字印刷로 考案發展시키는데 成功한 계례는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특히 鑄字印刷은 영토가 좁고 독서인구가 한정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적합하여 일찌기 創案되었다. 그 시기가 關係資料의 未傳으로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13세기 전기에 鑄字印刷가 中央官署에 의해 實施되었음이 確認된다. 鑄字版 證道歌를 江華로 천도한 高宗 26년(1239)에 重彫한 翻刻本이 전래되어 立證되고 있다. 또 江華政府에서 詳定禮文을 28部 鑄字로 印成하여各司에 나누어 간직케 하였다. 난중에는 외침을 물리치는 것 이외의 일에 대하여 머리를 쓸 겨를이 없을 터인데, 이렇듯 기술적으로 어려운 鑄字印刷를 손쉽게 실시했다는 것은 결국 그 이전에 이미 鑄成된 活字가 있어 가지고 왔거나 혹은 이미 鑄字印刷의 經驗을 하여 그 실천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우기 이 鑄字印刷의 事例가 모두 당시 武人政府의 제 1인자인 崔怡의 命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틀림이 없는 사실임을 다짐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中央官署의 鑄字印刷는 元의 獨裁적인 지배가 시작되자 중단되었는데, 그런 사이에 실로 주목케 하는 것은 寺刹이 鑄字를 만들어 책을 찍어 낸 점이다. 그것이 바

(4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卷24 鑄字印書辨證說의 「中原活字 以武英殿聚珍字爲最 字背不凹而平 鑽孔貫串 故字行間架如出一線 少不橫斜矣 我國字式 則或大或小 或厚或薄 又凹字底 不鑽不貫 故字行齟齬」.

(49) 昌彼得, 《中國圖書史略》印刷書冊時代 銅活字的淵源 p. 34.

(50) ① Cater, J.F.,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rev. by L.C. Goodrich. 2nd ed. New York, The Ronald press. p. 238-243 The pedigree of Gutenberg's Invention.

② 庄司淺水, 《印刷文化史》p. 107-130. 16 ヨハン グーテンベルクの生涯; 17 グーテンベルクの作品.

로 1377년 興德寺에서 印施한 《直指心體要節》이며 現傳하는 世界最古의 鑄字本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방의 一個寺刹이 中央官署에 의한 鑄字印刷의 영향을 받고 실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되새겨진다.

麗末에 이르러 排元思想이 싹트고 主權의 復舊意識이 대두되자 종전처럼 書籍鋪을 두고 鑄字를 만들어 책을 고루 찍어내서 학문하는 이들에게 널리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자, 그것이 恭讓王 4년(1392) 정월에 제도상으로 복구되어 書籍院이 설치되고 鑄字業務를 전담하는 승과 丞의 官職까지 마련되었다. 비록 그해 7월에 麗朝가 전복되어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鑄字印刷를 朝鮮의 新王朝에로 계승시켜 마침내 世界印刷文化史上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鑄字印刷라면 그것을 고안 보급시킨 시기의 면으로 보거나 슬기를 짜내어 꾸준히 개량 발전시킨 면으로 보거나 그 종류가 다양하고 鑄成의 技法이 優雅精巧한 면으로 보거나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活字王國의 위치에 君臨해 왔으니, 그토록 우리 조상들이 人類文化發展에 寄與한 슬기로운 文化民族이었음을 만방에 실증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게 평가된다.

眞不立 白駒未似流波急當日文王  
 却識珍卞和堪笑空垂泣  
 妄本空 遊子思鄉歲已窮舉足是家  
 歸便得何勞流恨向西風  
 有無俱遣不空空 若欲存空還是礙  
 山人去後老猿啼茅屋空來白雲在  
 二十空門元不著 眞妄悠悠病已除

高麗官鑄版證道歌의 重影本

名爲智和知入覺不思議  
 承古禪師常勸諸人莫學佛法但自無心去利  
 人盡時解脫鈍根人或三五年或不過十  
 年去老猶繫你六共舌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宣光七年丁巳七月日 清州牧 德  
 寺鑄字印施

高麗興德寺鑄字印本 直指心體要節